No. 13 ETF·적립식 읽는 시간 4분

ETF 총보수가 0.45%p 차이 나면 20년 뒤 내 돈은 얼마나 달라질까?

ETF 총보수는 따로 청구서가 오지 않고 수익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가상의 1,000만 원으로 총보수 0.05%, 0.5%, 1.0%를 20년 동안 비교하고, 총보수만으로 ETF를 고르면 안 되는 이유까지 계산해 봅니다.

한 줄 결론

총보수 0.45%p 차이는 1년에는 4만 5천 원이지만 20년에는 310만 원 넘게 벌어지고, 총보수는 여러 비교 기준 중 하나일 뿐임

확인할 숫자

총보수, 순자산, 거래량, 추적오차



사진: 높이가 조금씩 다른 동전 더미, Au Kirk, Flickr.

목차

1. 총보수는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2. 1년만 보면 정말 차이가 없을까?
3. 20년 뒤에는 얼마나 벌어질까?
4. 차이는 왜 시간이 갈수록 커질까?
5. 총보수가 가장 낮은 ETF만 고르면 될까?
6. ETF를 고르기 전에 던질 다섯 가지 질문

> 이 글의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ETF의 매수·매도 권유나 수익률 예측이 아닙니다.

ETF를 고르다 보면 총보수 0.05%와 0.5%를 보고 「겨우 0.45%인데 뭐가 다를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을 겁니다. 청구서가 따로 오지 않으니 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숫자는 20년 뒤 내 돈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가상의 숫자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01

총보수는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총보수는 ETF를 운용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해마다 떼어 가는 비용입니다. 연 0.5%라면 ETF에 담긴 돈의 0.5%가 1년에 걸쳐 조금씩 빠집니다.

보통 이 돈은 ETF의 가격(기준가)에 매일 조금씩 반영됩니다. 통장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확인 필요: 운용사별 반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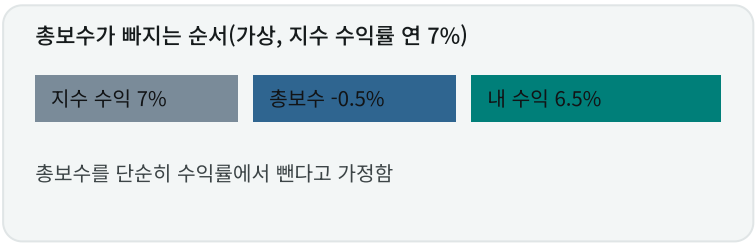


그림 1. 가상 예시. 총보수는 따로 청구되지 않고 내 수익률에서 빠짐.

이처럼 총보수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지만 수익률에서는 분명히 빠집니다.

02

1년만 보면 정말 차이가 없을까?

가상의 ETF 두 개를 비교합니다. 둘 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고 지수는 해마다 7% 오른다고 가정합니다. 한쪽은 총보수가 0.05%, 다른 쪽은 0.5%입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 뒤에 0.05%짜리는 10,695,000원, 0.5%짜리는 10,650,000원입니다. 차이는 45,0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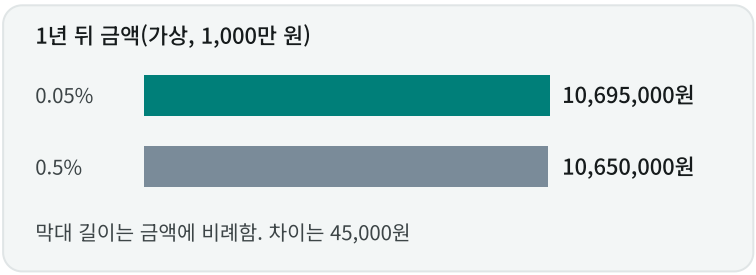


그림 2. 가상 예시. 1년 뒤에는 막대가 거의 같은 길이임.

1년이면 점심 몇 끼 값입니다. 그래서 다들 넘어갑니다.

03

20년 뒤에는 얼마나 벌어질까?

같은 조건으로 20년을 보겠습니다. 총보수 0.05%, 0.5%에 1.0%를 하나 더 넣어 비교합니다. 매년 수익률에서 총보수를 빼고 복리로 계산했습니다.

1,000만 원은 총보수 0.05%에서 38,336,793원, 0.5%에서 35,236,451원, 1.0%에서 32,071,355원이 됩니다. 0.05%와 0.5%의 차이는 3,100,342원입니다.



사진: 가운데 좁은 목으로 모래가 떨어지는 모래시계 확대 사진, graymalkn, Fli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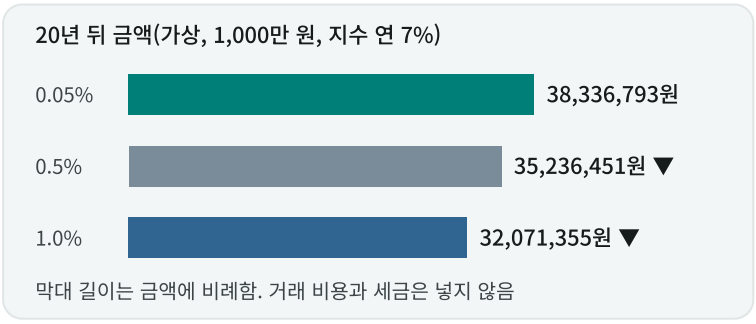


그림 3. 가상 예시. 총보수가 클수록 20년 뒤 금액이 줄어듦.

총보수 0.45%p 차이가 원금 1,000만 원의 31%에 가까운 금액으로 벌어졌습니다.

04

차이는 왜 시간이 갈수록 커질까?

총보수로 빠진 돈은 그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남아 있었다면 다음 해에 다시 불어났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0.05%와 0.5%의 차이는 1년 뒤 45,000원, 5년 뒤 291,911원, 10년 뒤 808,409원, 20년 뒤 3,100,342원입니다.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4배가 되는 동안 차이는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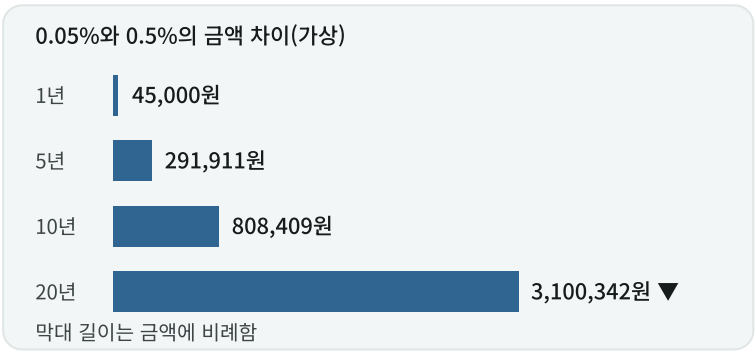


그림 4. 가상 예시. 시간이 길수록 총보수 차이가 커지는 속도도 빨라짐.

이처럼 총보수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 오래 쌓이는 숫자입니다.

05

총보수가 가장 낮은 ETF만 고르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보수는 비용을 보는 기준일 뿐이고 ETF가 얼마나 지수를 잘 따라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총보수 말고도 순자산(ETF에 담긴 전체 돈), 거래량, 추적오차(지수와 ETF 수익률의 차이)를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사고팔 때 가격 차이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기준 시점]



사진: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손, Images_of_Money, Fli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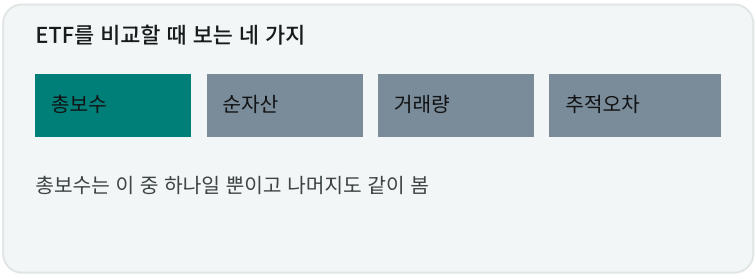


그림 5. ETF 비교 기준 네 가지. 총보수만 보고 고르면 놓치는 것이 생김.

총보수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지만, 혼자서 답이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06

ETF를 고르기 전에 던질 다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TF 상세 화면을 열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총보수는 어디서 나가는가?"**
   → 따로 청구되지 않고 ETF 가격과 수익률에서 매일 조금씩 빠집니다.

2. **"1년만 보면 정말 차이가 없을까?"**
   → 가상 예시에서 1,000만 원 기준 45,000원이라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3. **"20년을 보면 얼마나 달라질까?"**
   → 가상 예시에서 3,100,342원 차이가 났습니다. 원금의 31%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4. **"차이는 왜 커질까?"**
   → 빠진 돈이 다음 해에 다시 불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 **"총보수만 낮으면 좋은 ETF일까?"**
   → 아닙니다. 순자산, 거래량, 추적오차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처럼 0.45%p라는 작은 숫자는 오래 가지고 갈수록 큰 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ETF의 총보수와 순자산을 증권사 앱에서 찾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글에 쓴 ETF 두 개와 모든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상품 자료가 아님. 지수 연 7%, 총보수를 수익률에서 단순 차감, 복리, 세금·거래 비용 제외로 계산함
- 실제 ETF의 총보수·순자산·거래량·추적오차: 각 운용사의 ETF 상세 페이지와 투자설명서 [확인 필요: 기준 시점]
- 총보수 외에 매매·중개수수료 등이 더해진 실제 총비용은 상품마다 다름 [확인 필요]

분류·태그 ETF·적립식 #ETF #복리 #비용 #수익률 계산 #총보수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auto-1200.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